대림 제 4 주일

기도서 P. 221 B해
제1독서(사 무 7,1-5.8-12.14-16)
제2독서(로 마 16, 25-27)
복 음(루 까 1, 26-28)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1978년 성탄 메시지

주님과 함께 기쁜 삶을!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요한 1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참조)

김 재 덕 주교(전주 교구장)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과 모든이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것만이 아닌, 온 인류와 온 누리의 것이므로 온 누리가 주님의 성탄을 경하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와 온 누리의 구원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요한 1장 10절)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읍니다. 바로 헤로데 왕이라던지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나 정치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 분으로 알아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성탄이 더욱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더욱 더 감사롭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는 교형 자매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도 성탄의 은총과 기쁨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1.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으로오신 예수님

성서는 예수님이 죄 이외에는 우리와 꼭 같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베드르 전서 2장 22~24절, 이사야 53장 4~12절 참조).

그것은 예수께서 죄와는 무관한 분이시지만 죄로 인해 온갖 불행을 당하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범죄로 인한 온갖 조건과 상황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말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며 욕망과 나태에 끌려 다니다가 마침내는 죽음의 운명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역시 무질서하게 되어 미움이나 애정, 슬픔이나 외로움 등으로 그 생각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꼭같이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까지 맛보셨읍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꼭같이 마음의 번민에 시달리셨읍니다. 특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극도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통중에 계셨는지를 볼 수 있읍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고통과 욕망, 나약함과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그 해답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심한 갈등과 번민 속에서 하느님께 그 의미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의미와 해답을 찾다가는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자기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하느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 되시고 육체적인 모든 제약과 마음의 모든 번민을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셨읍니다. 우리가 역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제도나 체제, 기타 모든 사회·정치·경제·문화적인 여건 속에서 삶을 영위하듯이 예수님도 당시의 사회속에서 생활하셨읍니다. 당시의 사회는 오늘의 우리 사회보다 결코 더 나은 상태는 아니었읍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버리시고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며, 눈먼 사람들에게 보게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였읍니다, (루가 4장18-19절, 이사야 61장 1~2절참조)

〈2면에 계속〉

숲정이 산책

서민의 츄리

〈1면에서 계속〉

2.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탄생하신다.

우리는 예수 성탄을 경축하면서 2천년 전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그 은총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이며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성탄의 신비를 계속하시며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2천년 전에 비천하게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비천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의 한국이라는 우리의 상황속에서 한국인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느끼시며 우리와 함께 활동하십니다.

3.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마음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성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가르칩니다(요한 1장1절, 14절 ; 창세기 1장 참조). 그러나 그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 활동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는 책을 썼읍니다. 이말은 깊이 새겨들을 말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의 수 만큼이나 의견이 많고, 그 많은 의견 중에서 어느 의견에 따라 행동해야될지 어려운 경우가 실상 허다합니다. 동물은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정확히 행동하는데 비해, 추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오히려 행동해야 할 입장에서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로 인해 육체적인 제약이나 마음의 갈등이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꼭같이 몸과 마음을 지니고 인간상황 속에서 살아가신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십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일치하면 할수록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분의 몸인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여 행동할 때, 예수 성탄의 신비는 우리 각자 안에서도 풍요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은총과 기쁨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 형제들과 함께 일할 때, 친구들과 한 자리에서 우정을 나눌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진정 기쁘게 살 수 있읍니다.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읍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동 암 (모이세)

늘 깨어 있어라(4)

—껍질을 벗어 던져라.

사람은 여러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사람의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물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 그 밑바닥에 깔린 사상임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크리스챤인 우리들은 물과 성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난 크리스챤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을때, 고백성사를 통해 거듭 새로 난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긴 여정의 순례길을 걸으며 우리는 매일 매일, 아니 순간 순간마다 거듭 새로 나지 않으면 안된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는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 생명을 지니게 된다 우리도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껍질들—위선·아집(我執)·오만·비리(非理)—을 깨고 나와야 한다. 하느님과 이웃 형제들에게 눈속임을 하는 껍질을 벗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온갖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남의 잘못과 남에게 걸었던 무너진 기대속에 나를 올려놓고 다시 바라보기도 해야 한다.

의기양양한 사울은 교회를 부수어버릴 양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처넣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러 예수를 만난 사울은 달라졌다.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할 정도로 달라진 사도 바오로가 된 것이다. (사도행전 8—9장)

늘 깨어 있지 않으면 하늘에서 오는 빛도 만날 수 없다. 벗어 버리자. 성탄절을 맞으며, 또 한 해를 보내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굳은 껍질을 벗어 버리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이 성탄과 새해가 은총과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 온 인류와 온 누리에 퍼져나가게 합시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가 2장 14절, 이사야 57장 19절 참조)

—1978년 성탄절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성탄절 메시지□

두렵다고 眞實을 외면하면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한다.

—김 수 환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14일 성탄절을 앞두고 메시지를 발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폭력이 판치는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메시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자들로부터의 위협, 물가고, 진실을 말하고 의롭게 살려다 화를 입을 위협 등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어두움이 만연하는 곳에는 폭력이 판을 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도록 사명을 다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기 위해 머리둘 곳조차 없는 어려움 속에 태어나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생명까지도 하느님께 맡기고 의(義)를 위해 살다 이 세상을 떠났다. 어두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미 예수가 그의 생을 통해 보여 주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간 예수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큰 자유를 누렸고, 그분을 옭아매는 사슬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나약한 인간이라도 자신의 나약함을 최대한의 무기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것이 아기 예수의 길이다.」

제 조그마한 힘이라도…

먼저 안부를 드립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신태인 본당 산하 공소신자입니다. 지난 주 〈숲정이〉를 보니 편집실에 전화가 없어서 애로가 많으시더군요? 힘닿는대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디에서 귀어 보낼만한 용기도 없읍니다. 다만 저의 조그마한 힘이 보탬이 될까 하여, 제 용돈을 아껴 쓰기로 하고 성의를 표합니다. 적다 하지 마시고 받아 주십시오.

제 성의가 편집실 전화를 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만족하겠읍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용돈이 생기는대로 보내드리겠읍니다.

좋은 〈숲정이〉, 내용이 알차고 우리 신자들의 신앙심을 돋구어 줄 수 있고 자신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숲정이〉 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78. 12. 15 정읍군 태인면 거산리 422 서 분도 드림

※ 숲정이 편집실 전화놓기에 보내주신 성금

신태인 서분도…1,000원, 창인동 어떤 청년…2,000원. 감사합니다.

성 (축) 탄

1978. 12.

전주교구 사제단(司祭團)
전주교구 평협(平協)
교구보(敎區報) 숲정이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은·보석·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 시 계 점 으로
황 의 선(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252

최신형 전세버스 환영
□ 기타 국내판
□ 효도 관광 지정업체
③ 4000·④ 09994
삼 남 관 광 여 행 사
대표이사 : 한 상 오
관광과장 : 범 석 배(떠또)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결 (축) 혼

시 중 창 씨 차남 용 배 군
황규동(토마스) 씨 차녀 선 희 양
일시 : 79년 1월 4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전주 전동 천주교회
주례 : 김환철 신부님

롯데·해태·유명제과 메이커 대리점
※교우님들에게 특별봉사하겠읍니다
식료·과자류 도산매
이 안(李安) 상 회
□관선동 파출소 옆(舊·유안상회)
☎ (商)③2681·(自)③9724
이 영 문(안드레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신년 교례회**…79년 1월 1일〈월〉 오전 11시 반, 가톨릭 센타
   ① 11시부터 등록 ② 회비 1,000원…간단한 중식과 기념품(79년도 신자수첩) 드림
2. **남성 제12차 꾸르실료**…79년 1월 4〈목〉~7〈일〉
   ※ 선배 꾸르실리스타의 협조 바람…빨랑카, 개회식과 마나니따 및 폐회식 참여
3. **불우한 이웃돕기 자선 전시회**…78년 12월 22〈금〉~27〈수〉, 가톨릭센타…교구 인성회 주최
   ※ 그림 출품자…지당 강기호, 아산 강용호, 김종태, 구곡 정재석, 야석 조귀창, 조정오 신부, 한소희, 현유복 신부(가나다 순)
4. **군산시내 연합 청년 송년미사**…12월 29〈금〉, 오후 7시 반, 미사후 송년회 있음
5. **중·고등학생을 위한 묵상회**…28일〈목〉-30일〈토〉 가톨릭 센타
   ※ 회비 4,000원(개인부담 3,000원),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람

□ **군산지구 꾸르실료 울뜨레아**…27일〈수〉 오후 5시 30분, 팔마천주교회, 화비 : 2,000원〈식사 제공〉

(중앙)

전화 ③3651 /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정 승 현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축 성탄! 성탄 미사시간**
   24일〈일〉-자정미사(밤 12시) 주교님 집전
   25일〈월〉-오전 9시(학생), 오전 10시 30분(공식), 오후 7시 30분
2. **주일학교 어린이 발표회** : 24일〈일〉 오후 4시~6시
3. **J.O.C 일일 찻집**
   장소 : 강당, 일시 : 24일 7시. 많은 협조 바랍니다
4. **상지회** : 27일〈수〉 오후 6시
5. **유아세례** : 29일〈금〉 오전 11시
6. **영세사진 찾아 가세요** (사무실)
7. **전례담당**
   24일〈일〉 복사 : 김정생·윤팔만, 해설 : 합문권
   자시미사 복사 : 김정생·윤팔만·합문권·장남수, 해설 : 양학도 25일 : 복사-김형택·오중원, 해설-장남수, 31일 : 복사-김한영·김영춘, 해설-임주택

□ **지난주 봉헌금** : 200,000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1. **축! 영세식** : 새로운 신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 어린이 영세식 : 오늘 오후 2시
   나. 성인 영세식 : 오늘 오후 2시 30분(미사중에)
2. **미사시간 안내**
   24일-오전 6시반, 오전 10시, 오후 2시반, 밤 12시
   25일-오전 10시, 오후 3시(아동미사), 오후 7시
3. **레지오 마리에 연총 친목회** : 29일〈금〉 오후 7시
   이날 오전 미사가 없고 저녁 7시에 있겠읍니다
4. **망년미사** : 31일. 밤 12시에 망년미사가 있읍니다
5. **교무금 납부의 달**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3,08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강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1. **고통받은 자매에게 사랑의 성금** :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성원과 협조바랍
2. **영세식** : 오후 3시 미사후(영세 30명) 축하합니다
3. **성탄 미사안내** : 24일-자정미사
   25일-10시미사·12시·저녁 7시 30분
4. **축! 결혼**
   25일 12시-홍선표(스테파노), 박금자(마틸라)
   28일 10시-정정모, 김덕순(아가다)
   31일 11시 30분-김기열(요한), 이경숙(마리아)

□ **지난주 봉헌금** : 42,745원 **교무금** : 88,82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축! 성탄** : 아기 예수님께 12시 자정미사에 봉헌…
2. **확대회를 거쳐 79년도 예산 확정** : 봉헌해야 할 교무금도 정해졌읍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시다
3. **주일 어린이미사** : 4시 어른들은 나오지 마시고 새벽미사나, 10시미사, 저녁 미사에 나오세요
4. **축! 영세식** : 23일 영세하신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 **보미사단 성탄선물** : 2,000×9=18,000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57,5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축! 영세** : 새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환영합시다
2. **판공성사** : 오늘 중으로 꼭 보십시오
3. **축! 성탄** : 감사헌금 봉헌합시다 (25일)
4. **24일 성탄행사 안내**
   제1부(전교부)-주일학교, 중·고등학생(8시~11시)
   제2부(전례부)-선물교환, 자시미사후-전신자
   제3부(사도회)-각반, 친목회-전신자
5. **25일 성탄 미사안내**
   아침미사-6시-주일학교
   공식미사-10시-성가대·어머니회
   저녁미사-7시 30분-중·고등 학생

□ **지난주 봉헌금** : 39,66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24일 성탄 전야제** : 자정미사
   주일학교·학생회 성극-많은 관람 바랍니다
2. **25일 성탄 대축 미사안내** : 10시 공식미사·오후 7시
3. **요안회 총회** : 12월 31일
4. **사도회 임시회** : 공식 미사후
5. **성당 신축 기성회 첫회합** : 위원님 꼭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133,19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예수성탄 미사지향** : 소망과 평화
   성야예절 : 10시~0시(예절·영세·미사),
   중·고생 성탄 : 7시~10시
   25일(성탄)미사-10시(주교님 집전),
   미사후 (공로장 수여, 주임신부 영명 축하식),
   7시-김신부님·이신부님 합동미사
2. **첫 영성체** : 오늘 10시 미사중
3. **성가정 총회** : 25일 오후 2시
4. **장우회 친목회** : 25일 저녁 7시 미사후
5. **성화회 친목회** : 24일 밤 미사후
6. **영세자 축하식** : 25일 저녁 7시 미사후
7. **교도소 미사** : 25일 오후 2시
8. **이베로니카 할머니 1주년 미사** : 27일 오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 178,000원 **교무금** : 410,00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1. **성탄 행사 안내** : 영세식및 첫 영성체-오늘 공식 미사중. 파티마 "성탄 잔치"-밤 7시 주일 미사중
   교리반 중·고생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영세자 환영 및 성탄 축하 파티 : 자정 미사후
2. **성탄 미사안내** : 밤 11시반(자정미사)
   25일 : 오전 10시, 오후 7시
3. **송년회** : 때-31일 밤 9시, 곳-회의실, 회비-500원
4. **평화의 미사** : 1월 1일 오전 9시반
5. **꾸르실료 참가자를 위한 기도** : 4분이 참석합니다. 기도해 드립시다
6. **레바논을 위한 기도와 헌금**
   12월 31일 주일 헌금을 이 의향으로 바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56,805원

---

* 인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 3 2 7 2